



성매매에 주먹질까지… “경찰 왜이러나”

최근 일부 경찰 잇따라 구설수 자초하며 조직 품위 해쳐
제주경찰청 감찰부서에 ‘수사권’ 부여해 기강잡기 나서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직권남용 의혹부터 시민 폭행까지 현재 제주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잇단 추문에 휩싸이며 조직의 품위를 해치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달 23일 밤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B씨

를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씨가 A경정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경정은 이날 직원 5명과 함께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당사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며 “A경정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에서의 감

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제주경찰청 소속 C경정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C경정은 과거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형사와 소속 경장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올해 초 경찰관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부서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감찰 이후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기던 관행을 버리고, 감찰 수사팀을 신설해 감찰부터 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대한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 20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지난해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11건, 품위손상 등 9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4명, 경감 8명 등의 순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밀폐공간에 갇혀 공포스러웠다”

드림타워 4일 승강기 사고
방문객 7명 수신평간 갇혀
타워측 “지속해서 점검 중”

제주서 가장 높은 빌딩인 ‘드림타워’ 승강기에서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드림타워를 방문한 A씨는 해당하고도 무서운 일을 겪었다. 이날 오전 11시17분쯤 38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승강기를 탔다가 수신평 동안 갇힘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당시 승강기 안에는 7명이 있었고, 갇힘 시간은 약 30분 정도”라며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평 갇혀 있으니 상당히 공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드림타워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잇따라 승강기가 멈춰서는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 업체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후 6개월가량은 잔고장이 많은 시기, 즉 길들이는 시기로 보면 된다”며 “특히 드림타워에 있는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와 달리 고속주행시설로 돼 있어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전문가가 상주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업체 관계자들이 4일 드림타워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관계자는 “4일 발생한 사고는 CCTV 확인 결과 19분 정도 갇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승강기에 있던 방문객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병원 치료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장 이전에 발생한 승강기 멈춤은 점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드림타워 승강기는 총 48대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세계적인 승강기 기술자들이 제주에 상주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주말 ‘강한바람’ 예보

주말 제주는 비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며 “이후 5일 아침부터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6일까지 이어지겠다”고 4일 예보했다.

모처럼 비소식은 없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5일 오전까지 9~14%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6일 오후에는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상에도 2~4m의 매우 강한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온은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1℃, 낮 최고기온은 14~16℃이며, 6일 아침 최저기온은 9~11℃, 낮 최고기온은 14~16℃로 예상됐다. 송은범기자



봄비 내린 날... 꽃지알 즐기기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4일 제주시 한경면 한상송꽃지알을 찾은 관광객들이 꽃지알 숲속을 걸으며 푸르려 가는 제주의 봄을 느끼고 있다.

어획량 숨기고 그물코 규격 줄여 싹쓸이 해수부, 제주해역서 불법조업 이어선 2척 나포

국내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

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해 어린 물고기 남획을 방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70해리 부근에서 규격보다 좁은 그물(약 35mm)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고,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 당시 적

재 어획물을 30t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총 18t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또래 여학생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박군은 지난해 1월 27일 새벽 0시쯤 제주 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인 A

(14)양을 찾아가 1회에 25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A양이 제안을 수락하자 같은해 2월 2일까지 불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 500만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오늘 4·3특별법 도민 보고회

제주4·3특별법개정정기공동행동은 5일 오전 10시 관덕정 광장에서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제주특별

법 개정 과정 영상 ▷축사(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이석문 교육감)

▷시낭송(허영선 4·3연구소장) ▷각계 발언(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유족·정연순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강철남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오임종 유족회장 감사 인사 ▷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잔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The Number of 1st grade water solution fertilizer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